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4:32-34.39-40 제2독서 로마서 8:14-17 복음 마태오 28:16-20

◎말씀 < 하나 되게 하소서 >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느님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톨릭교리 중에서 가장 알아듣기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교의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하느님이 되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육체적 껍데기를 입으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개최되고 이단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공의회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됨이 없이 그리고 분리됨 없이 그 한 본체로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라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느님은 한 분 뿐이시다는 믿음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한 본체를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며 또한 인간이란 허물을 통해서 현현한 하느님도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11)라고 하시며 또한 다른 모든 믿는 이들도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어” (요한17,24) 이루어진 것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 안에 계시고 하느님 역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서 일치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느님 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사랑 안에서 또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1일(화)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5,812.00 \$ 1,093.00
6월2일(수)	연중 제9주간 수요일	아침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07.00 \$ 48.00
6월3일(목)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순교자들 기념일	저녁7시30분	성 물 방 기타수입	\$ 176.00 \$ 150.00
6월4일(금)	연중 제9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6월5일(토)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전10시30분 저녁7시30분	합 계	\$ 7,386.00
6월6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학생: 9명 성인: 131명
교무금 봉헌자	이나숙(1-12월)김재선(5-12월)진엘리사(6-10월)오영자.박종윤.이경희.이의웅.최재진(5-6월)이환(4-6월)김용문(4-5월)전미숙(1-5월)김병길.우순이.김운태(5월)김계숙(6월)류승교(7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앙고백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 모습 안에서 또 인간의 역사 안에 드러난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위격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로 드러난 하느님께서서는 같은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위(位)로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위' (三位)로 드러나신 하느님께서 '일체' (一體)를 이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대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합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이며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유사종교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 지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한 묵시록에 계시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부께서 활동하신 시대로, 신약을 성자의 시대로, 그리고 교회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로 구분하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서는 한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 위격이시되 언제나 항상 한 분이로서 함께 활동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 한에서 이뤄진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한 분이시며 일치를 이루며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기은희.마리아/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타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남필레마리아
신상철.사무엘/이호순.수산나/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 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이슬기 수술회복과 건강	박모란글라라
연	전기레 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연	전기레 베레나 영혼	박재레마리아			
연	박두운 요셉 영혼	박재레마리아			
연	박혜선 로사 영혼	박재레마리아	연	정홍용 바오로 영혼	정미정루시아
연	임흥덕,정광석,곽재엽울리아 영혼	정미정루시아	연	라인삼 루시아 영혼	정미정루시아

◎ 그 좋은 시절 ◎

“성모성월이여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하며 노래하던 이 좋은 시절이 지나갑니다
벌써 피는 더위 폭염의 열기 숨이 참니다.
넘어야 할 산은 아득하고 ... 다만 그 산길에
변함없이 산나리 꽃 피고 별이 뜨니 불별에 젖은 땀 식히며 식히며
도보로 맨발로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 시원한 시냇물 만나 발을 씻으며

홍윤숙.데레사 시인

간
장
주
지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예비신자 교리(성탄반) 모집안내
환영식:7월1일(목)오후8시.데레사방
미사전 전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적극적인 활동과 인도바랍니다.(구역별1명)
- 2.본당 사목회의 개최
일시:30일(일)오후1시. 친교실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St.Mary's 천주교묘소 안장예절 신청서 제출
일시:30일(일)교중미사직후 친교실
담당:St.Mary's 묘소직원 (성당방문접수)
- 4.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6월5일(토)오전10시30분.성당
안나회.요셉회 회원께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저녁7시반 특전미사는 정상적으로 집전합니다.
- 5.거룩한 독서 (쭈모임)
일시:6월9일(수) 오후8시, 마카베오 상권
- 6.리노공소 미사안내 (월중계획)
신부님 미사집전: 매월 2 째주 일요일
부제님 말씀전례: 매월 1,3,4 째주 토요일
6월 13일(일) : 신부님 미사집전
5, 19, 26일(토): 부제님 말씀의전례
- 7.소토주교님 본당방문
일시:6월20일(일) 오전11시.교중미사
목적:본당 신부님 부임미사 및 견진성사 집전
- 8.견진성사 및 견진교육 안내
견진일시:6월20일(일)오전11시.교중미사중
교육일시:매주 교중미사후. 구세제관(성가대방)
신청대상:세례받은지 3년이상, 16세이상
제출서류:신청서(사무실비치) 및 세례증명서

- 9.사목위원 임명
주일학교장:오민정.크리스티나
기쁜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본당내 제단체 결산보고
보고기한:6월30일(수)까지
보고방법:각 부서장 및 단체장
(기한내에 신부님께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
대 상:여성부,사회복지부,주일학교,연령회,성물방
본당내 모든 신심/연령단체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개설 안내

입금은행:Wells Fargo 예금주: ST.J.H.C
Account No.: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교구 방역지침

- ①미사참석인원과 지켜야할 사항은 기존지침과 동일합니다.
- ②주일학교, 예비자교리반, 견진교리반, 전례부 복사단, 사목회, 재정위원회는 5월1일부터 허용됩니다.(단,음식나눔은 금지합니다.)
- ③6월15일 부터는 모든 기도모임, 레지오마리아 사회복지모임 등 모든 모임은 가능하지만 본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 나눔은 금지합니다.
- ④새크라멘토 카운티가 Orange Level로 완화되면 미사참석명단 작성은 중단되고 신자간의 거리 두기도 좀 더 가까워집니다.
- ⑤새크라멘토 카운티가 Yellow Level로 완화되면 성당안에서 거리두기도 없어집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전례봉사	삼위일체대축일(5월30일)	성체성혈대축일(6월6일)	연중제11주일(6월13일)	연중제12주일(6월20일)
미사해설	오민정.크리스티나	김은영.폴리나	김선영.플로라	정미정.루시아
복사	최준우.루카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